

임실·군산·장수 등 쇠퇴한 원도심 3곳 지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START'

임실에서 전북형 뉴딜

첫번째 출발 알러

성가리서 전문가 포럼

도정공장 양극창고가 대상

전라북도는 중앙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예산을 수립해 쇠퇴한 원도심 3곳(임실, 군산, 장수)을 지원하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 생활SOC 확충,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역량을 강화, 지역주민 참여기반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북형 뉴딜사업'의 첫 번째 출발은 임실군이다. 임실군은 국내치즈산업의 발상지인 성가리 지역의 도정공장 양극창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업의 종합적 추진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기 위한 '임실 성가리 전문가 포럼'을 18일 대상지인 양극창고에서 진행했다. <관련기사 11면>

포럼에는 주대관(문화도시연구소 대표), 차주영(부여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주경(오우재건축사무소 대표), 노경록(Z-lab 대표), 김성주(도시건축이래 대표), 김지훈(문화통신사 대표), 김형연(호원대학교수), 김남중(라인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최재문(김제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 등 건축과 문화기획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



임실군은 국내치즈산업의 발상지인 성가리 지역의 도정공장 양극창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업의 종합적 추진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기 위한 '임실 성가리 전문가 포럼'을 18일 대상지인 양극창고에서 진행했다.

보를 공유하고 거점공간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임실군은 대상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모델을 구축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영선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2019년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체제를 해소하는 일단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3개 시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차별화된 지역재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의 밀착지원과 성과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대상지의 공간 기획에 대한 전문가 포럼과 임실군의 지역 특산물과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잔치마당으로 구성됐으며, 임실군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동주관으로 다음달인 19일까지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비뇨의학과

환자 특성 배려 '리모델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뇨의학과를 이전 리모델링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뇨의학과 외래와 방광경실을 분관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고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약 3개월간의 공사기간에 걸쳐 완료했다.

비뇨의과과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환자가 많은 과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공간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던 검사실과 진료실을 한 곳에 위치시켜 동선을 효율화하고, 처치실을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해 환자 적체를 해소하고 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택배 사라지면 배송사 우선 배상

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안 시행

앞으로 택배 상자가 사라지거나 파손될 경우 배송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택배 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분실·파손 등 배송 사고를 겪은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내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점 약관에는 배송 사고 관련 손해 배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분쟁이 이어져왔는데,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뉴시스

연구·지도직 공무원 시험장 감염예방 '만전'

농진청, 27일 전주온빛중 포함 도내 3개 시험장서 연구·지도직 공채 필기시험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책임 방역 실시, 시험장 출입구에 질서유지 전담요원 배치

시험장 출입 시 손 소독·발열 검사·마스크 착용 후 입실, 수용인원 작년보다 줄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연구·지도직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총 1,255명이 지원해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직 9개 직류 38명과 지도직 1개 직류 3명 등 41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온빛중 학교를 비롯한 전북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농촌진흥청은 감염 예방을 위해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장을 고사장 책임관으

로 지정해 책임 방역을 실시한다. 시험장 출입구에 질서유지 전담요원을 배치해 출입 전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시험장 출입자는 손 소독, 발열 검사 및 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수 있다. 시험실별 수용인원은 지난해 25명~3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여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장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험 당일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나, 자가격리자는 25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김진진 운영지원과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응시자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본격 활동 돌입

국내서 31개 수출시장 다변화 참여업체와 연계 3개월동안 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우리 농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이 지난 15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34명의 청년개척단원이 해외파견 대신 국내에서 31개사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참여업체'와 연계해 3개월간 비대면 수출전략에 맞춰 신시장 개척 활동을 펼친다.

올해 말레이시아, 모스크바, 몽골 등 시장다변화국에 파견된 aT 파일럿요원들이 현지에서 온라인 시장개척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내에서 청년해외개척단이 수출국 검역·통관 절차, 유통망 등의 정보조사, 신규 바이어 발굴, 비대면 모바일 화상상담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수출업체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엔 선발된 청년해외개척단 1주(23) 단원은 "지난해 몽골교원화생으

로 있을 때 현지 BKF(Buy Korean Food) 수출상담회에서 한국 농식품을 열심히 홍보하는 개척단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꼭 한번 지원해보고 싶었다"며, "비록 올해는 국내활동에 국한되었지만, 활발한 비대면 홍보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해외개척단은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과 1:1로 매칭해 수출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며, 수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경험을 쌓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260명의 청년들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쳤다. 특히 단원들은 젊은 층을 겨냥한 현지 마케팅을 통해 수출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aT 이병호 사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마케팅도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청년들의 특목특주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시각

으로 한국 농식품의 수출영역을 넓혀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부 차관, 주한 인도대사에

韓 농산물 수입허용 협조 요청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8일 스텔리아라 주한 인도대사 주한 인도대사와 만나 한국산 농산물의 대(對)인도 수출을 위한 수입허용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랑가나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 주요 국가인 인도와의 연대를 증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랑가나탄 대사는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을 통해 농식품 교역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뉴시스

공공기관과 신축사옥 안전점검 강화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감사 실무협의회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이춘구)은 공공기관들과 협업 감사를 통해 신축사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18일 본부 사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임동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본부 제2사옥 합동 안전점검(8월 예정) 시 전문인력 교류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상호 특화된 업무 분야 및 공동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인 교환 △내부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경영역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신축중인 국민연금 세종사옥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울러 공단은 지난 4월에도 한 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공공기관



과 전기·소방 시설 안전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에 대한 협업 및 공동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춘구 상임감사는 "안전수칙 준수에 소홀하면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 안전분야에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감사기법을 공단 신축사옥 현장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과 감사역량 강화 협력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업무 교류·지원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상임감사 함중걸)은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함중걸 상임감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임동욱 상임감사가 함께 한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안전,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과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 교류, △감사 전문분야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함중걸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감사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감사업무 역량을 높이고, 안전과 청렴문화 공유를 확산하는데 좋은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임동욱 상임감



사 또한, "안전분야 교차감사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0년 감사인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여 자체감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사 전문성 강화와 선진감사를 위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중기 물류비 절감 위해

국내 외 물류창고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전북중기청, 올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중기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 사업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배송비를 낮추고, 국내의 물류창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00여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행성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원혜택은 물품 배송비의 50% 이상 할인, 5개 국내의 물류창고 이용 비용(국내 7개, 해외 14개국 28개 중 선택) 및 수출인신고 대행비 등 지원(소비용의 70%, 최대 1,500만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제공 등이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류비용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지역 기업은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고충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5월에는 항공물류비 상승 및 배송 지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항공화

세만금개발청, 유튜브 활동

비대면 투자유치 추진

물 운임 보전사업'을 추진하여 1,350개사를 지원,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덜어준 바 있다.

신청·접수는 7월 3일까지이며,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jonbuk) 또는 중진공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의문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세만금개발청, 유튜브 활동

비대면 투자유치 추진

세만금개발청이 오는 19일 오후 5시(유럽시간 오전 10시) 개발청 유튜브 채널에서 '세만금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독일(7개사), 이탈리아(4개사), 프랑스(1개사), 벨기에(1개사), 미국(2개사), 일본(3개사), 인도(1개사)의 자동차기업 총 20개 기업이 초청된다. /뉴시스